

# “불교학자는 된 만큼 말해야 하고 말한 만큼 돼야”

## 나의 **산** 나의 불교학

서운길 교수

나는 불교를 불교인도 모르고 배웠다.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 때 전주로 피난을 갔다. 전주에 다니던 나는 서정주 시인에게 국어를 배웠고, 미술가 이상만 선생에게 미술을 배웠다. 중학시절 읽었던 <슈바이처 전기>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뿐이었지만 당시 '사회복지'라는 말도 학문도 없었다. 다만 어린 마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고, 그러려면 철학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고교 2학년 때 하동 쌍계사에 출가하려 갔었다. 고등학교나 마치고 오라고 되자 안됐다. 다시 학교로 왔지만 복학이 안됐다. 전국 유망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발길 닿는 곳으로 떠돌아 다녔다. 대전역 앞에서만 거지들과 1달 반을 생활했다. 지금도 어릴 적 배운 학교공부는 기억나지 않아도 1년 동안 유랑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생생하다.

고등학교로 돌아온 나는 신학과 유학, 불교학을 사이에 두고 고민했다. 서양철학을 전공하던 선생 한분이 내게 불교학을 공부하라는 추천을 했다. 당시 동국대 불교학과는 후기였다. 재수할 형편도 못했지만 나는 전기시험을 치루지 않았다. 그만큼 불교학과에 진학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대학공부를 하며 노점상, 포장마차 따치는 대로 다했다. 학부를 마치고 나니 대학원 공부가 필요했다. 석사를 마치니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다. 내친 김에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내 공부는 은사인 흥 정성식 교수가 없었다면 어려웠다. 흥 교수는 내 후견인이었다. 생활이 어려웠던 내

게 아르바이트 자리는 물론 강의 자리까지 주신해 줬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불교학 졸업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교법사 시험을 1등으로 통과한 나는 대동상고에 발령받았다. 박사과정을 대동상고에서 선생을 하며 마쳤다.

<도선과 그의 비보사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다들 중국도참설로 알고 있는 것이 밀교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내 논문에故 조명기 박사 등 교수들 칭찬이 자자했다. 그 논문 덕에 나는 교수가 됐다.

독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책을 계속 읽다보니 견해가 바뀌었다. 30대 출세의 발판이 됐던 도선 국사에 관한 논문은 50대에 다시 썼다. 웅감했던 30대에는 “도참, 음양오행 모두 아니다. 오로지 밀교”라고 썼지만 50대 내 논문은 “원류는 밀교지만 음양오행, 도참도 스며들었다”로 바뀌었다. 강의도 그랬다. 젊은 시절의 강의는 이론과 주장만 강조하며 시비가 분명했다. 50대가 넘으니 자료와 견해를 소개하고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외부강의를 하면서는 남에게 배우는 방법만 연구했다.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뻔한 말들로 배수를 받았다. 세월이 흐르니 어느 순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나는 그들을 기억 못해도 그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괴롭고 부끄러웠다. 그 이후부터 나는 지하철 걸인 하나 지나치지 않았다. 천원짜리를 꺼내 건넸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건넸다. 나를 알아볼 사람은 어서 알아보고.

지관 스님 총장 시절, 6·29 선언 등 민주화시위가 한창일 때 학생처



교육에는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들려주는 교육은 이론으로 무장해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여주는 교육은 삶 속에 녹아있는 모습을 말한다. 보여주는 교육이 '됨'이라면 들려주는 교육은 '알'이다. '알'과 '됨'의 두 가지 중 특히 불교학자라면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나는 보여주는 교육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들려주는 교육도 부족해 부끄럽다. 특히 22년 보직 살면서 학자 본연의 연구가 부족했던 것에 후회한다. 지금까지 내 불교학은 남을 위한 것이었다. 내 공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강의도 남을 위해 했다. 이제는 내 자신의 근본 문제를 고민하며 나를 더듬는 일에 매진한다.



**서운길** 교수는 1941년 하동 출생. 1968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고려시대의 밀교사상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밀교사상 분야의 독보적 존재로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장익교수(위덕대), 김영덕 교수(위덕대), 최성열 교수(조선대), 이정수 박사, 정성준 박사, 배관성 회장(가평프레이), 이수덕 사장(전 불교TV) 등이 논문지도도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고려밀교사상사연구> <밀교개론> 등이 있다.

장을 맡으며 어느 누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처신했다. 소신으로 재단과 학교, 학생들에게 인정받다보니 정년까지 22년을 보직을 쉬지 않고 맡았다.

관리처장을 맡을 때다. 당시 난로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석달씩 걸렸다.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용역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정인익(불교대학원 동문회장)씨에게 200만원만 달라고 했다. 그 돈으로 엠베서더 호텔 부패를 대접했다. 남은 돈으로 청원야유회를 갔다. 내게 "처장님... 아저씨... 형님..." 하던 용역 직원들은 "처음으로 인간대접 받는다"고 했다. 이후 석달 걸리던 난로 설치와 철거는 10여일로 줄었다.

22년 보직을 이어 살면서 그래도 잘살았다고 생각할 때가 요즘이다. 퇴직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사람을 인정하고 아껴야 한다. 사람 하나도 보듬지 못한 자가 어찌 수행하고 성불하겠는가. 특히 종교하는 사람은 남에게 나서기에 앞서 내가 됐느냐의 자성이 필요하다. 들려주는 설법보다 보여주는 설법을 해야 한다. 된 만큼 말해야 하고 말한 만큼 되어야 한다. 불교는 이론과 실천이 결미되어야 한다. 일례로 성철 스님이 화두를 "몸중일여, 동정일여, 속면일여 해야 한다"고 한 것을 경험 없는 자들은 단계로 착각한다. <능엄경>에 "이근 통달만 되면 육근이 통달한다"고 하지 않았나? 불교는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

대동상고 교사 시절 학생을 모아 '선재회'를 꾸렸다. 중학생들 머리를 깎아주고, 공부를 모았다. 꽃을 따다 광화문에서 팔며 돈을 모아 어려운 학생을 도왔다.

하루는 수도공고 교사인 큰 딸 해림이가 돈이 없다며 집사람과 싸웠다. 무슨 일인가 물으니 점심을 굶는 학생, 수업료 못내는 학생 등 어려운

학생을 위해 월급을 모두 써서 자기 밥값도 없다고 했다.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다. 그 날 우리집 냉장고에는 '해림이 밥값'이라고 쓰인 봉투가 붙었다. 나는 담배를 끊고 담배살 돈을 봉투에 넣었다. 고스톱 해서 돈도 넣었다. 장모님도 보냈다. 집에서 모인 돈만으로 학생 5명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다. 사회교육원장 때는 이송자 보살(천허문화재단)이 도와 3명 학생과 새로 인연을 맺었다. 그렇게 도움 준 학생들 중 1등한 학생은 동국대 공대에 진학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진학한 학생도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어릴 적 무다한 꿈을 여러 교수들과 이수덕, 배관성 등 제자들이 도와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밀교는 불교의 꽃이고 해답이다. 현교(顯敎)로는 보살7지까지 오를 수 있다. 보살8지부터 성불하기까지는 밀교(密敎) 수행법이 필요하다. 또 현생업은 현교로 소멸하지만, 전생업은 밀교만이 가능하다. 시골 장독을 보면 위낙 오래 묵혀둔지라 장독에 찌꺼기가 있다. 찌든 때는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얼은 찌꺼기는 물로 헹구고 없어진다. 하지만 바닥에 눌러앉은 것은 복결질로만 가능하다. 복결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밀교의 진언 수행이다.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 불교를 알았기에 더 큰 악행과 악업의 유혹을 이겼다. 불교가 아니었다면 참회할 기회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전전긍긍하며 밤새 울었던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돕다 광화문에서 팔며 돈을 모아 어려운 학생을 도왔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불교공부를 하고 싶다. 오늘도 나는 관음정진을 하며 내 마음자리를 찾는다.

정리·조용성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녀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거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않고 초극세사 방수원단 콜크창, 보아털 10mm 지압식 실리온 동 깔창, 미끄럼 방지 눈슬림 깔창, 수작업으로만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몸건강을 생각하며 우리교우의 **설 명절,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만행화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녀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 벽산 합장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인) \*법보시 상담 환영  
■ 본사 :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종각역 2번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 만행화 |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 상운각 063274-68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선승복 062226-2870 • 서울 : 부상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컷다불교점 054655-2525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가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모장 · 100% 환불모장**